

# 韓國 先史時代 및 三國時代 住居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再考

姜榮煥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

## I. 서론

주거사는 한 민족집단에 있어서 주거문화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구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거는 분명 건축의 한 유형이지만 타 유형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거는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축유형으로서 보편성과 필수성을 갖는다. 또한 주거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생활을 담고 있는 생활무대로서 생활양식이나 사회·생태환경 등 총체적 환경과 직결되어있어 민족과 사회마다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해 왔다. 주거는 인류문화의 시작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까지 지속되는 건축유형인 동시에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변화,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 총체성, 지속성 등은 주거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通時的, 共時的 접근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따라 문화인류학, 문화지리학,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등 문화를 다루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인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연구들은 특정한 시대, 또는 지역적 한계에 머물거나 주거문화의 일면만을 다루기 때문에 주거문화의 통사적 체계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학내의 건축사분야는 주거를

건축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변화과정을 궁구한다는 점에서 주거문화의 通史的 體系에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러나 건축사학의 접근방법은 모든 건축유형을 포괄하는 시대적 성격과 변화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건축기술사적 해석에 치우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주거문화의 시대적 성격이나 통시적 해석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연구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이거나 한국주거사의 통사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약 30년정도의 짧은 연구연혁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선구적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연구업적들이 축적되어 왔다. 특히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이르기 까지 폭발적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많은 사료가 발굴되었고, 이를 통하여 한국 주거사와 관련된 연구가 건축학 분야에서 석·박사 논문의 대중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모호한 역사인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사의 범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으며, 그나마 주로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한계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 주거사의 통사적 체계를 수립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선사시대와 고대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수도 극히 적어, 몇몇 연구자들의 70, 80년대 연구가 비판없이 재인용되면서 학문적 담보상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주거사 연구에 있어서 특히 고대국가 시대까지의 부분은 고고학이나 역사학의 자료 및 이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80년대 이후 고고학이나 역사학분야에서는 폭발적인 사료발굴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기존의 이론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주거사와 관련된 사료나 이론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료나 이론적 변화는 주거사의 기존 이론들을 검토할수 있는 지평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들이 아직까지 신속하고 적절하게 주거사의 범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인접학문에서는 이미 폐기된 가설들이 아직도 정설화되고 있는 학문적 지체현상도 보이고 있다.

역사연구에 있어서 학문적 발전이란 끊임 없는 사료의 발굴과 재해석, 비판과 검증, 수정과 보완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주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사 및 고대시기에 관한 주거사적 연구성과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의 시대구분과 시대별 성격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쟁점들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려 한다.

## II 선사, 고대 주거사의 시대구분과 성격규정

### 2-1. 구석기-신석기 시대

#### 1) 인공주거의 시작

주거는 인류문화의 산물이기에 인류출현의 시기나 그들의 문화와 거처를 조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흔적은 평양 祥原郡에서 발굴된 검은모루 유적이라고 한다. 북한측 주장에 의하면 60-40만년전 정도의 것<sup>1)</sup> 이라고 하여 前期 구석기인이 살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시기

의 인류는 곧선사람(Homo erectus)으로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불을 능숙하게 사용하였으며, 수렵이나 채집에 의존하면서 계절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이동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알려진다.

한반도 구석기인들의 유적은 주로 자연동굴이나 바위그늘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구석기인들은 아직 인공적인 주거가 아닌 자연동굴이나 바위그늘 등 자연적으로 주어진 은신처에 일시적인 거처를 만들었다는데 학자들마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공주거의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는 신석기시대를 한국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구석기 시대에도 인공주거가 건설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고고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주 석장리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을 인공적인 집자리로 인정해 왔다.<sup>2)</sup> 주거사의 연구자들도 석장리의 발굴결과를 인용한 바 있지만 이것을 인공주거의 시작으로 인정하는데에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다. 구석기 인공주거지의 발굴사례수가 적고, 발굴된 유적이 주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구석기 시대 인공주거의 출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주 석장리의 예를 제외하고도 구석기 인공주거의 흔적들이 보고된 바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중기 구석기시대의 집터로 보고된 용기 屈浦里 I기층이며, 후기 구석기시대의 공주 石壯里 (약 2만 8천년 전), 제천 창내, 화순 대전 등의 유적을 들 수 있다.<sup>3)</sup> 이러한 유적들의 내부에서는 그들의 생활도구(대부분 석기)들이 발견되었고 석장리에서는 화덕자리도 발견되었다. 또한 당김돌, 누름돌, 문돌 등 건축용 부재가

- 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상)』, 오월, 1988, 11쪽
- 2) 손보기,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사연구 9』 한국사연구회, 1973 참조
- 3) 이용조 외 4인, 『우리의 선사문화(1)』, 지식산업사, 1994,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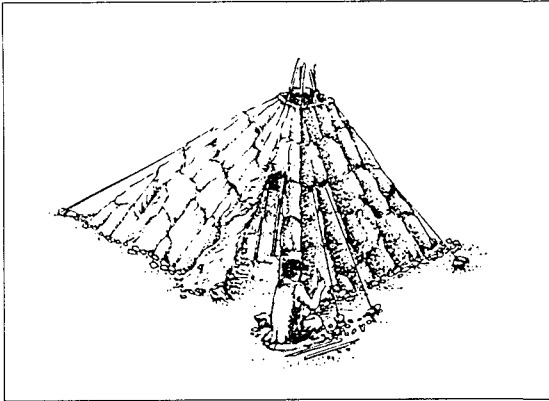


그림 1. 공주 석장리 구석기 주거의 복원상정도  
(자료: 손보기,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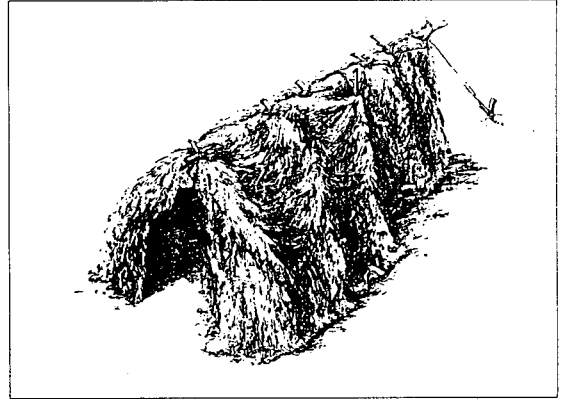


그림 3. 화순 대전 구석기 주거의 복원상정도  
(자료: 이웅조, 30쪽)

발견되었고 평지에 건설되었기에 이를 '평지 천막형 주거'로 인정하였던 것이다.<sup>5)</sup> 비록 이러한 유적들이 수렵중에 임시적으로 만든 거처(hunting camp)이거나 계절을 단위로한 순환적 거처(seasonal camp)일 가능성이 높지만 구석기시대 인공주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 주거사의 시작은 구석기시대로 그 출발점을 올려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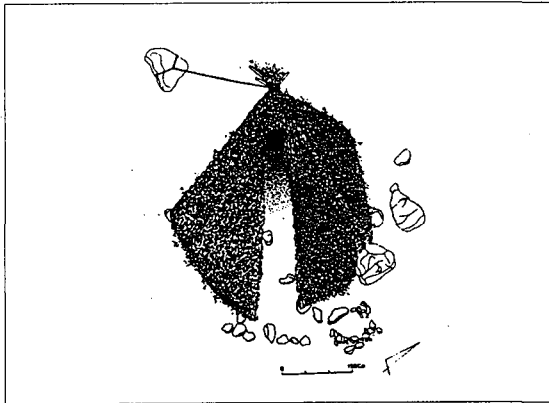


그림 2. 제천 참내 구석기 주거의 복원상정도  
(자료: 이웅조, 52쪽)

## 2) 신석기 시대 주거사의 시대구분과 주거유형

신석기 시대 주거사의 쟁점은 우선 시대구분과 편년에서부터 출발한다. 김정기는 본래 가장 오

래된 주거지가 신석기시대 말기인 즐문토기 문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즐문토기 문화기로 구분하였다.<sup>6)</sup> 그는 후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신석기 시대라 하고 그 시작연대를 기원전 3000년대로 잡았다.<sup>7)</sup> 주남철은 당시 고고학적 시대구분을 토대로 신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신석기 중기(기원전 3000-2000년)에 움집이 출현한다고 기술하였다.<sup>8)</sup> 홍형욱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합하여 수렵-채집경제시대로 구분하면서 신석기시기에 가장 오래된 유구를 지탑리 유구라고 기술하였다.<sup>9)</sup>

이러한 시대구분과 편년은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결과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신석기 문화의 시작은 기원전 6000년대 이전으로 올려잡고 있으며, 최소한 기원전 5000년대가 확인되어 있다. 신석기 주거유적의 발굴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주거사 연구자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된 집자리가 보고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된 신석기 유적은 양양 오산리의 것으로서 이에 따라 신

4) 고고학계에서는 '막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 이러한 막집의 존재는 신석기시대 집터중에서 가장 오래된 양양 오산리 집터가 움집이 아닌 평지 막집이라는 점에서도 시대적 관련성을 추정케 한다  
6)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Ⅳ』,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117쪽  
7) 김정기, 우리나라 주택의 역사, 『한국주택의 어제와 오늘』, 대한주택공사, 1977, 58쪽  
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3, 12쪽  
9) 홍형욱,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5, 36쪽

석기 인공주거의 시작도 기원전 6000-5000년대로 고쳐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사의 시대구분에서 신석기 시대를 즐문토기 문화기로 보는 견해는 즐문토기 문화기가 기원전 4000년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또한 구석기와 신석기를 묶어 수렵·채집경제시대로 보는 견해도 문제가 있다. 우선 두 시대간에 주거양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한 시기로 묶을 수 없다는 점이며, 신석기 후기를 수렵·채집경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탑리의 농기구 출토로 부터 최근 경기도 시화지구, 일산신도시 개발지구, 우도 등지에서 농경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어 신석기 시대 농경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신석기 시대 움집들은 농경을 위한 정착형 주거로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석기 시대 주거에 대한 또하나의 쟁점은 움집의 발전과정이다. 신석기 시대의 인공주거는 여러 집터의 발굴결과 대부분, 땅을 파서 생활면을 만든 움집(竪穴住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움집은 신석기 시대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양양 鰲山리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집터는 움집이 아닌 地上住居로 밝혀져 주거발달사상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산리 집터<sup>11)</sup>는 5000-6000 B.C.의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모두 8기의 집터가 발견되었는데, 움집이나 반움집이 아닌 지상주거로서 당시 주민들이 계절을 단위로 한 일종의 순환적 거주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었다.<sup>12)</sup> 이러한 주거의 연대나 그 모습으로 추정할 때 움집이 발달하기 이전에 일시적인 거처로서 이러한 막집형 주거가 건설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실증적 자료들이 요구되지만 일단 구석기 시대 막집에서 신석기 시대 움집으로 발전하는 과정적 단계를 추정케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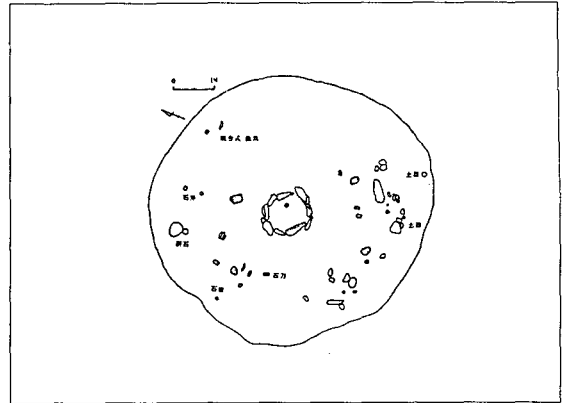


그림 4. 양양 오산리4호 주거지(자료:오산리 유적, 18쪽)

## 2-2. 청동기 시대

### 1) 청동기 시대의 구분

주거사에 있어서 청동기 시대의 편년 또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먼저 김정기는 본래 '남한에서는 뚜렷이 청동기시대를 설정할 수 있을 만한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기에'<sup>13)</sup> 청동기와 철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무문토기문화기로 구분한 바 있다. 고고학계에서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존재가 인정된 이후에도 그는 '두 시대의 주거지의 모습이 서로 비슷하여 주거의 구조나 형태 또는 그 시설 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따로 설명하기 하여 편의적으로 두 시대의 주거의 양상을 통털어 '청동기(기원전 700-300) 및 초기철기시대(기원전 300-원년)로 설명하였다.<sup>14)</sup> 주남철은 청동기 시대를 전기(기원전 700-300)와 후기(기원전 300-원년)으로 나누었지만 주거사 기술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청동기 시대로 다루었다. 홍형욱 또한 같은 방법으로 청동기와 초기철기 시대를 구분하였으나 원시농경시대라는 하나의 시기로 설명하였다.

11) 임효재, 권학수, 1984, "오산리 유적 I. II",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9책. 제 10책, 서울대학교 박물관 참조

12) 같은 책, 61쪽

13)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28쪽

14) 김정기, 우리나라 주택의 역사, 『한국주택의 어제와 오늘』, 대한주택공사, 1977, 80쪽

10) 이용조, 『알책』, 83-85



사진 1. 송국리 제 5호 흙집터 (자료:장경호, 44쪽)

여기에서 문제는 청동기 시대의 시점이 고고학과 다르다는 점과 과연 청동기와 철기를 가름할 만한 주거양상의 변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두 시기의 차별성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청동기의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 100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잡는 것이 정설화되고 있다.<sup>15)</sup> 한편 청동기 집자리도 기원전 1000년대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로 판명된 것 중에서 기원전 700년 이전의 것만 해도 13개소가 넘는다. 주거사 연구자들이 흔히 청동기 주거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 여주 혼암리, 옥석리, 부여 송국리 등의 유적도 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 1000-800년의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사에서 청동기 시대의 시점을 기원전 1000년대로 올려잡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 2) 반움집의 존재

기존의 연구자들은 신석기와 청동기를 구분하는 시대적 특징으로서 움집의 평면적 변화를 들었다. 원형이나 방형의 평면에서 장방형 평면으로의 변화, 주거면적의 확대, 저장공의 소실과 저장공간의 분리, 화덕의 편재와 화덕수의 증가,

15)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 일지사, 1991, 68쪽

민패토기 유적 탄소 연대표

유 적 이 름	탄소연대 (B. C.)
경기도 여주 혼암리(집자리 12호)	1570, 1280, 1165, 855
강원도 춘성군 內坪里 집자리	1200, 835, 435
충청북도 堤原郡 陽坪里 집자리	1040
경기도 양평군 楊根里 집자리	1000
경기도 여주 혼암리(집자리 8호)	945, 930, 685
부여 송국리 집자리	845, 800
경기도 파주 玉石里 집자리	820
경기도 矢島 조개더미	645
함경북도 무산군 虎谷 집자리 15호	610
경기도 양주군 水石里 집자리 3호	565
경기도 여주 혼암리 집자리 13호	435, 230
경기도 양평군 上紫浦里 고인돌 4호	290
경기도 여주 혼암리 집자리 14호	270

표 1. 민패토기 유적 탄소 연대표(자료: 김원룡, 68쪽)

초석의 사용 등을 중요한 변화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거평면의 변화는 농경의 발달에 따른 주거공간의 분화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여전히 움집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전체를 두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청동기 시대 반움집의 증거가 다수 발견됨으로써 쟁점으로 부각된다. 반움집이란 수직벽체가 발생하고 지붕 서까래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움집을 의미한다. 반움집은 지붕이 벽체와 분리되면서 맞배나 우진각지붕의 가구체계가 발전하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움집의 존재는 주거사에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인 동시에, 움집에서 지상주거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주거사 연구자들은 청동기 시대 반움집의 존재와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고고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동기 시대 반움집의 존재를 주장해 왔다. 기원전 1000년대를 기점으로 수직기둥과 벽체, 들보, 대공, 용마루, 양면경사지붕 등 지붕가구의 획기적 변화가 있었으며, 주초의 사용도 신석기 움집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해석되었다.<sup>16)</sup> 남한의 고고학계에서도 이미 움집의 분류와 변천을 통하여

신석기시대 움집에서 청동기 시대 반움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sup>17)</sup>

반움집의 구조는 청동기 시대 집자리에서 쉽게 확인 될 수 있다. 혼암리를 비롯한 세죽리, 금탄리, 태성리, 공귀리 등 움집터에서는 움의 가장자리에 남겨진 수직기둥 구멍자리가 자주 발견되었는데, 이는 수직벽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그 구조는 벽체위에 처마도리를 놓고 그 위에 양면으로 경사지게 서까래를 세워 교차점에서 종도리와 결구된 것으로 보여진다. 종도리는 움 중앙선에 기둥을 세워 대공처럼 받치거나 내부 기둥이 없이 처마도리를 가로지르는 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형태도 추정된다. 송국리 제 5호 움집터에서는 탄화된 지붕 구조체의 모습이 집터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용마루대와 여기에 의지하여 처마쪽으로 뺀 서까래, 그리고 서까래 사이를 연결했던 중깃 등이 보여져 이러한 구조를 可視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주거사 연구자가 반움집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장경호는 혼암리와 세죽리, 송국리 등의 예에서 반움집의 존재를 설명하고 이를 청동기 시대 주거의 특징으로 기술하였다.<sup>18)</sup> 신상효, 천득염도 청동기 주거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석탄리 유적을 분석하여 반움집의 존재를 설명하였다.<sup>19)</sup> 이제 한국 주거사에서 청동기 시대에 반움집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움집에서 지상주거로 발전하는 중간단계가 설명될 수 있으며, 도구발달에 따른 구조법의 변화, 정착형 주거로의 발전 등 주거사적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믿어진다.



사진 2. 울산 다운동 청동기 움집터(자료: 필자사진)

## 2-3. 초기 철기시대

### 1) 시대구분과 지상주거로의 발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주거사 연구자들은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한 시기로 다루어왔다. 학자에 따라서는 청동기(기원전 700-원년)와 원삼국시대(원년-300년)을 가르기도 하고<sup>20)</sup>, 고조선시대(기원전 2333-기원후108년)라는 모호한 시대구분을 하는 학자도 있었다.<sup>21)</sup> 이는 분명 고고학계의 시대구분인 청

16) 북한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집터에서는 외벽선에 따라 배열된 기둥구멍들이 자주 발견되어 수직의 벽체와 지붕이 분리된 반움집의 유형이 이시기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고있다. 김용남, 김웅간, 황기덕, 1975,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pp.138-164

17) 임영진, 움집의 분류와 변천, 『한국고고학보 17.18』, 한국고고학연구회, 1985, 143쪽

18)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3, 41-45쪽

19) 신상효, 천득염,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관한 연구 - 석탄리유적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 4권 1호』, 1995, 37쪽

20) 주남철, 앞책, 16쪽

21) 홍형욱, 앞책, 47쪽

동기(기원전1000-300년), 초기철기(기원전300-원년), 원삼국시대(원년-300년)의 편년과 차이가 있다.

주거사분야에서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두 시기를 구분할 만한 주거양상의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문헌적 근거를 들어 이 시기의 주거유형으로서 움집과 고상주거, 키텍집 등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두 시기를 구분할 만한 뚜렷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첫째는 온돌의 출현이며, 두 번째는 지상주거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확인된 집자리를 보면 거의 움집이나 반움집으로서 청동기 시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측 문헌에도 이시기에 움집의 존재를 의미하는 기록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진서 사이전 숙신씨조에 기록된 '夏則巢居 冬則穴處'라는 기사로부터 학자들은 巢居를 高床住居로 해석하는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소거는 주거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다락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명 지상주거에 해당한다.

지상주거의 직접적인 증거 또한 몇몇의 집자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지상주거의 유구는 細竹里 집터에서 보여진다. 세죽리 유적은 초기 古朝鮮단계, 즉 기원전 7-5세기의 문화유적이라고 편년되었다. 이 유적의 최상층에서 철기시대의 거대한 마을터가 발견되었으며 5기의 철기시대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나 청동기 시대의 반움집과는 달리 지상가옥이었다고 한다. 이들 집자리에서는 주춧돌이나 기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붕을 이루고 있던 통나무와 벧집이 불에 탄채 남아 있었다. 주춧돌 없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새초따위로 지붕을 이었으며, 집자리의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져서 만들었다<sup>23)</sup>고 한다. 이밖에 鶴南里 제2호 집터도 지상가옥에 가까운 맞배형의

집터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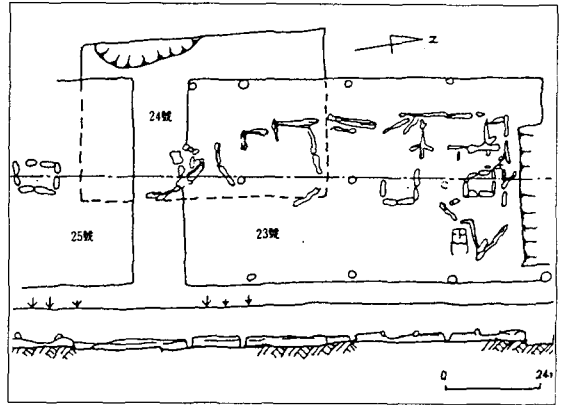


그림 5. 세죽리 제23호 집터(자료:장경호, 43쪽)

## 2) 온돌의 시작

청동기와 철기를 가름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온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온돌은 한국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알려져 왔다. 주거사의 발전과정으로 보면 온돌은 난방기술의 획기적 발전인 동시에 지상주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사 학자들은 온돌난방법의 시작과 전파, 확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는 오로지 중국문헌에만 근거하여 온돌이 고구려의 하층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을 통설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온돌의 기원과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온돌의 시원적 형태가 이미 초기철기시대 이전에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신석기시대 화덕으로부터 부뚜막형태를 거쳐 온돌로 발전하는 과정을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상정함으로써 온돌의 발전과정에 대해 명료한 가설을 제시하였다.<sup>24)</sup>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온돌의 존재는 세죽리 집터에서 보여진다. 세죽리집터는 신석기시

22) 후한서 동이전 읍류조 및 한조 등에서 수혈주거를 의미하는 용어가 나타난다.

23) 리순진, 장주협, 고조선문제연구, 1973, 20-21쪽  
유 엠 부썬, 「고조선 역사, 고고학적 개요」, 소나무, 1990, 295쪽에서 재인용

24) 장경호, 앞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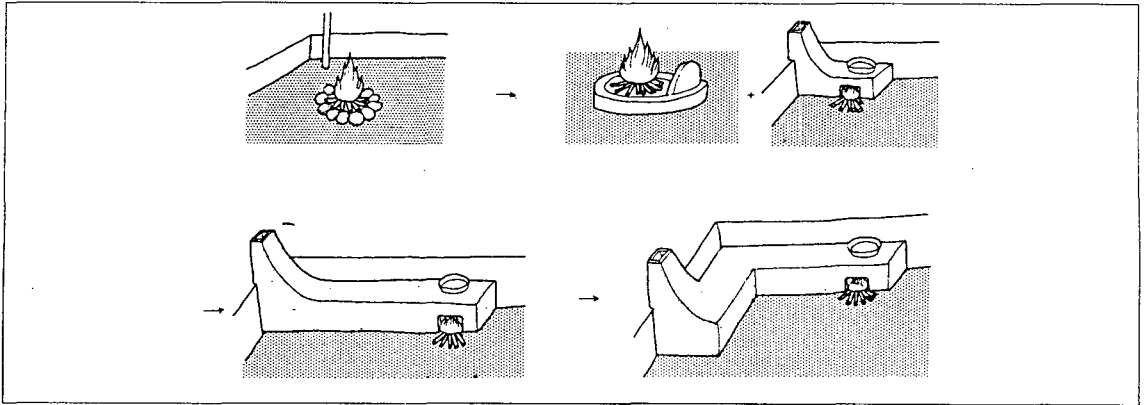


그림 6. 구들의 발전추정도(자료: 장경호, 53쪽)

대에서부터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의 층위를 이루고 있는데, 표토층 밑에서 집터 3기가 조사되어 보고되었다. 이 집터중 2개의 집자리에서는 구들이라고 추정되는 시설이 조사되었는데, 구들은 7자모양으로 외출고래였다. 구들이 심하게 파손되어 그 구조를 정확히 복원시킬 수는 없지만 구들고래는 돌로 되어 있으며, 그위에 조그마한 구들장이 덮혀 있었음이 분명하다<sup>25)</sup>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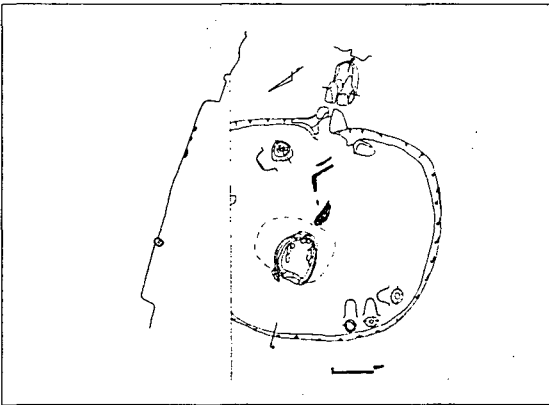


그림 7. 중도 제1호 움집터(자료:장경호,48쪽)

이러한 원시적 온돌시설의 유구는 남한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춘천 中島 제 1호, 제 2호 움집터는 기원전 1-2세기의 것으로 편년되었는데 화덕과 별개로 시설된 구들의 시원적 형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수원시 西屯洞 움집터에서도 구들로 추정되는 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300-원년)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제 7호의 움집터의 북쪽벽에 붙여 높이 30센티되는 얇은 흙벽돌을 약 30센티 폭으로 양측에 세워 그 위에 똑같은 크기의 벽돌을 덮어서 터널형 구들을 구축하였는데, 서쪽으로 길게 연장되다가 그 끝에서 아궁이를 만들고 동쪽 끝에는 벽에 붙혀 굴뚝을 높이 쌓아 지붕위로 뽑아 올렸던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sup>26)</sup>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은 지금까지 알려져왔던 온돌의 고구려기원설을 재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온돌이 초기 철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면 이는 분명 주거사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상주거로의 발전과 온돌의 시작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2-4. 삼국시대

### 1) 시대구분 및 주거계층화와 지역화

종래의 주거사 학자들은 청동기와 초기 철기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원삼국시대(원년-300년)와 삼국시대(300-600년)를 구분해 왔다. 이러한 구분은 역사학에서 고대국가체제의 성립이나 고고학에서 묘제나 토기형태의 변화를 기점으로 구분된 시기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6) 박병태, 1982, 수원시둔동주거지 발굴, 박물관신문  
장경호, 1991, "조선시대의 건축", 건축사 9110, 69  
쪽에서 재인용

25) 같은책, 2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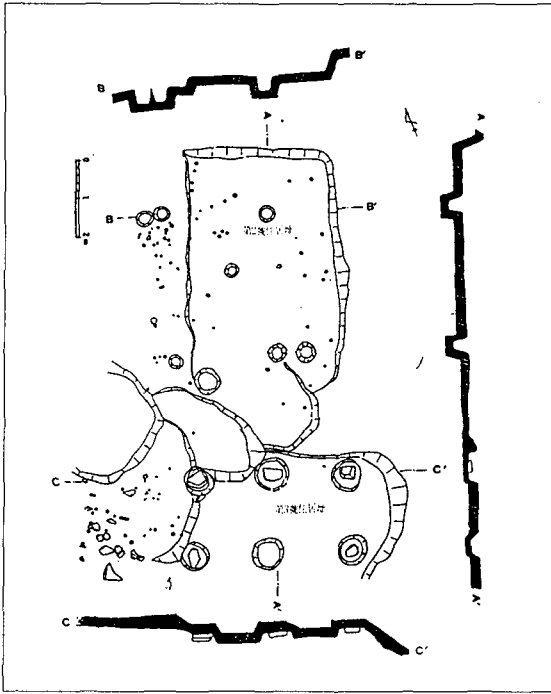


그림 8. 부원동 A지구 2,3호 주거지  
(자료: 가야건축, 135쪽)

그러나 주거사에서 시대구분은 주거문화의 변화를 기점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바, 현재까지 이 두시기를 구분할만한 주거사적 변화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체제의 형성은 분명 주거문화에 획기적 변화를 수반한다고 믿어진다. 국가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사회계층이 분화하고, 공공건축 등의 권위 건축이 건설되며, 상류계층에서는 고급건축기술과 재료를 이용한 주거형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궁실의 건립은 이러한 주거사적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여진다. 궁실은 주거계층의 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권위표현을 위한 건축기술의 진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궁실과 공공건물의 건립은 이미 기원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갖춘 부여에서 부터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으며 궁실과 창고, 감옥이 있다”<sup>27)</sup>는 기록이 나타난다. 고구려에서도 그 시조인 주몽이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 강

변에 풀집을 짓고 살았다”<sup>28)</sup>는 기록으로 부터 즉위 4년(기원전 34년) “성곽과 궁실을 지었다”<sup>29)</sup>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백제의 시작인 온조왕 15년(기원전 5년) “정월에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아니하였다”<sup>30)</sup>고 하였으며, 신라에도 시조인 박혁거세 26년(기원전 32년)에 “금성에 궁실을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31)</sup>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삼국의 형성초기(원년-300년)에 이미 궁실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초기의 궁실이 삼국 전성기의 그것처럼 화려하고 장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이로써 주거의 계층적 세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대국가로서의 신분제도나 사회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궁실은 지배계층의 거처로서 백성들의 주거와는 구별되는 권위적인 요소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봉상왕조에 이르기를 “임금은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바인데 궁실이 장려하지 않으면 위엄과 무게를 보일 것이 없다”<sup>32)</sup>고 함으로써 지배, 피지배 계층간에 주거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다.

궁실제도의 성립은 주거 계층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주거의 계층화를 기점으로 시대를 구분한다면 고대국가의 체제가 완성된 기원후 300년대 이후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거규모의 증대, 주거공간의 분화, 건축재료의 생산 및 목조가구체계의 유입 등은 모두 주거계층화에 수반되는 현상으로서 삼국시대 주거문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거문화의 변화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이며, 그 변화의 단계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한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를 구분하는

2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 1: 而末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29) 같은 책: 營作城郭宮室

30)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 春正月 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

31) 삼국사기 신라 본기 제 1: 營宮室於金城

3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君者 百姓之所瞻望也 宮室不壯麗 無以示威重

27) 후한서 부여국조, 以員柵爲城 有宮室倉庫牢獄

일도 무의미 할 것이다.

고대국가체제 성립 이후의 주거건축에 관한 사료들은 건물지나 벽화고분, 역사서를 통하여 얻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들은 주로 상류 계층에 국한된 것이며, 고구려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의 지역적, 계층적 편중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거사 연구자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구려에 관해서는 풍부하게 설명하다가 백제에 대해서는 '그 풍속이 고구려와 같다'<sup>33)</sup>는 단편적 기사로 축약되고, 그나마 통일이전의 신라나 가야지역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편제에서 지역적 차이나 계층적 차이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고구려, 백제를 통일신라와 동시대로 설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삼국 및 가야가 동시대에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지역적 환경이나 독자적 외교관계를 통하여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각기 독특한 사회구조 속에서 주거계층화를 이루었을 가능성도 짙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역성이나 계층성을 방증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시기는 삼국시대와 분리하여 통일후에 어떻게 지역성이 통합되었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있다고 보여진다.

## 2) 고상주거와 마루의 발달

근래에 들어 가야건축(주로 주거)의 독자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될 만하다.<sup>34)</sup> 이러한 연구는 고상건축을 가야건축의 독특한 성격으로 설정하고 마루의 기원과 전파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상건축의 남방 기원설이나 한반도전래설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많지만, 유독 가야지역에서 고상건축의 유구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당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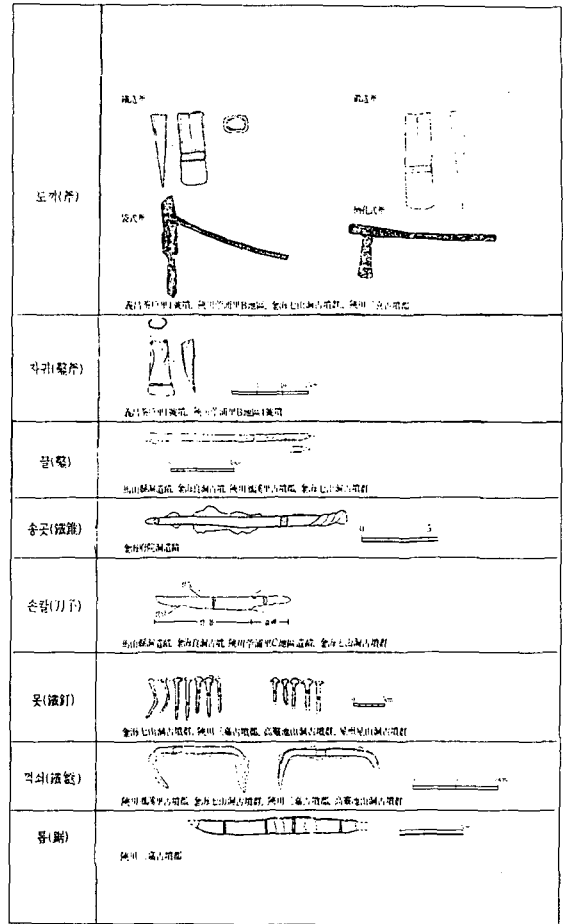


그림 9. 가야지역 건축공구(자료; 가야건축, 135쪽)

거의 지역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사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야지역에서 발견된 고상주거의 유적수는 5-6기인데 김해 부원동에서 2기, 삼천포 勒島에서 1기가 발견되었고, 그 외에 김해시 鳳凰臺와 창원시 加音丁洞의 유적조사를 통해 몇 기의 고상주거존재가 확인되었다<sup>35)</sup>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철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고자들은 고상주거의 흔적으로 추측하고 있다.

34)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연구한 「가야건축」은 가야시대 그 지역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라고 평가된다.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 「가야건축」, 김해시건축사회, 1995

35) 같은책, 134쪽

33) 신당서 동이전 백제조: 俗與高句麗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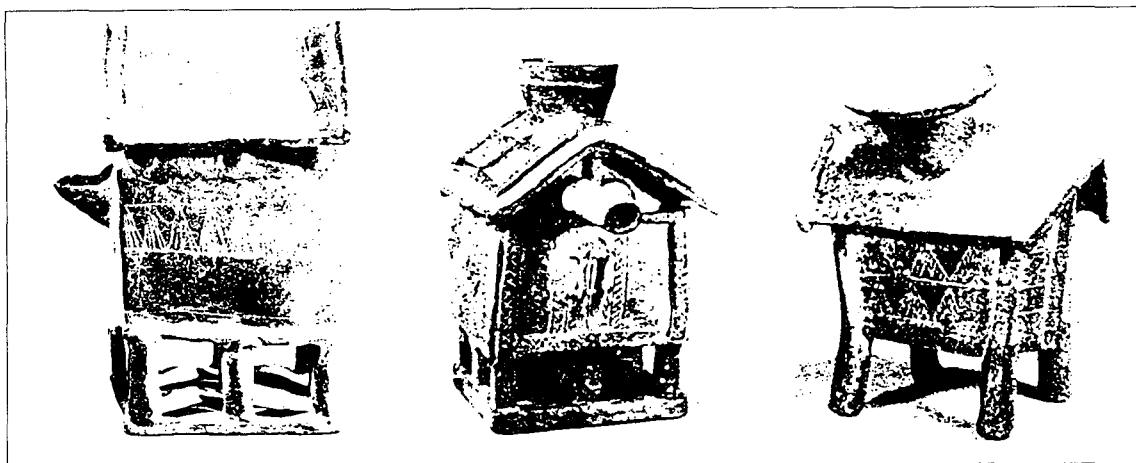


사진 3.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가형토기(자료:가야건축, 138쪽)

한편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가형토기도 고상건축의 존재 가능성을 높혀주고 있다. 삼국시대의 가형토기는 현재까지 7개 정도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4개는 분명한 고상건축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들이 수장용 창고 인지 주거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고상건축의 존재는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고상건축을 모사한 토기들이 유독 가야지역에서만 출토된다는 점도 위의 유적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고상건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재가공 기술이 필요하고, 판재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요구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출토되는 당시의 도구를 살피기도 한다. 가야지역에서 철기시대의 것으로 출토된 도구중에는 도끼, 자귀, 끌, 톱, 장도리, 가위, 송곳, 손칼, 쇠뿔과 꺾쇠 등 목재가공기술과 관련된 도구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의 존재는 판재가공의 가능성을 어느정도 판재가공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만으로 고상건축이나 마루의 가야기원설을 입증하거나 가야건축의 독자성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진서 숙신씨조의 기사 즉, '夏則巢居 冬則穴處'에서 巢居가 고상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여왔다. 숙신씨(일명 읍루)는 초기철기 시대에 부여의 동북방에 위치하였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초기 철기시대에 한반도 북부지방에

고상주거가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수원시 서둔동 집터에서도 철제 도끼, 철제 칼, 철제 톱 등이 출토되어 이것들이 목재가공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유구의 제 4호 집터에서는 톱으로 자른 板材의 숲이 나와 판재의 사용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은 철기의 사용과 더불어 목재의 가공기술이 진보하였고, 판재를 이용한 마루바닥의 조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분명 가야보다 이른 시기였을 것이며, 가야지역이외의 한반도 전역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고상건축이 가야에서 시작되어 신라나 백제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삼국에도 고상건축 혹은 마루구조의 존재를 추정케하는 유구들이 발견되었다. 익산 미륵사의 금당지에서는 초석의 주좌 옆에 귀틀홈이 발견되었는데, 이 귀틀홈은 마루 귀틀홈으로 추정되어 금당이 마루구조였음을 보여준다. 감은사 금당지의 바닥구조도 비록 돌이기는 하지만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추어 마루구조를 모사하고 있다.

불국사의 석축은 고상건축의 하부를 입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sup>36)</sup> 이 석축은 석재로 만들었지만 조적조로 쌓은 것이 아니라 마치 목구조 처럼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사이를



사진 4. 감은사 금당지의 바닥구조(자료: 필자 사진)

돌로 채워 넣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2층의 석단 상부에 역시 석재로 목재를 모방한 난간주석과 원형 돌란대를 만든 난간이 있어 고상건축의 일반적 특징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신라에 대한 문헌적 사료에도 '板屋과 板房'<sup>37)</sup>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마루구조로 추정해 왔던 것이다.



사진 5. 불국사의 석축(자료: 필자사진)

이러한 사료들을 종합해 볼 때 마루구조는 이미 초기 철기시대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루의 발달은 건축발달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바닥면을 지표면에서 분리시킬 만큼 목조가구기술이 진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바닥면이 상승하게 되면 건물이 높아져 풍압에 견딜만큼 튼튼한 구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바닥면이 지표와 분리됨으로써 지표상태에 관계 없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보라고 보여진다. 저습지나 경사지도 대지로 활용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실내의 환경조건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루는 습기와 통풍에 유리한 바닥재료로서 고온다습한 하절기 기후에 대단히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루의 발달은 한국 주거사의 시대를 구분할만한 지표적 사건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3) 온돌의 지역적 전파와 계층적 확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온돌은 이미 초기 철기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학자들은 구당서나 신당서의 기록에 의존하여 온돌이 고구려의 하류계층에서 시작되어 시대가 지나는 동안 지역적으로 남하하고, 계층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온돌이 한반도 전역에 전파되고 상류계층에 까지 확산된 시기는 대략 조선시대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이미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온돌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상류계층에도 사용된 흔적이 있어 검토의 소지가 있다.

삼국시대 온돌의 유구로 보여지는 증거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sup>38)</sup> 이 시대의 구들이 밝혀진 예로는 삼국초 백제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서울 화양동유적과 부여 부소산성내 4-5세기의 역시 백제 병영지로 추정되는 움집터에서 보여진다. 서울 화양동 유적은 백제초기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판재로 흙벽을 친 유구가 외줄구들시설과 함께 발견되었다. 부소산성의 집터에서도 벽에 연결하여 중앙에서부터 외부로 뻗어나간 구들의 측벽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온돌이 고구려 강역만이

37) 삼국유사 권 3 탑상 제 4; 朴林師 占北嶺獅子窟 作板屋 八尺房而居 故云板房

38) 온돌에 관한 실증적 사례들은 장경호의 연구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장경호, 앞책 참조

36) 장경호, 앞책, 1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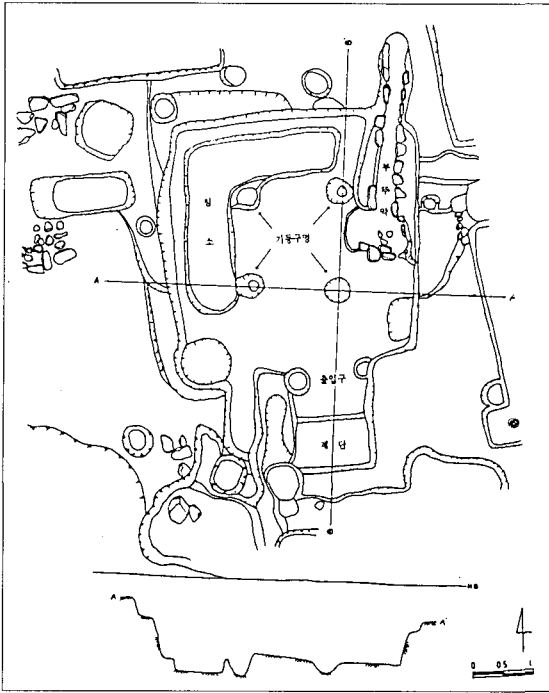


그림 10. 부소산성내 제3호 움집터 평면  
(자료: 장경호, 52쪽)

아닌 중부이남의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신라지역에서는 당시의 온돌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면 익산 미륵사지의 ㄷ자 혹은 ㄱ자형의 쌍줄고래를 비롯하여, 감은사 서회랑터의 후대건물터에서 발견된 4줄 고래시설, 완도 청해진 법화사터의 4줄고래, 문경군 원터의 6줄고래 등 남부지방에서 다수의 온돌유구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고려시대 이전부터 온돌이 남하하였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삼국시대 온돌유구는 상류계층의 주거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구들유구가 발견된 중국 길림성 줍안에 있는 고구려 동대자 유적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곳에서 노출된 건물터의 짜임새나 규모 그리고 출토된 유물로 보아 고구려 후기 귀족계급의 집터로 추정되고 있다.<sup>39)</sup> 또한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평양 정릉사지에서도 외줄고래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지체 높은 자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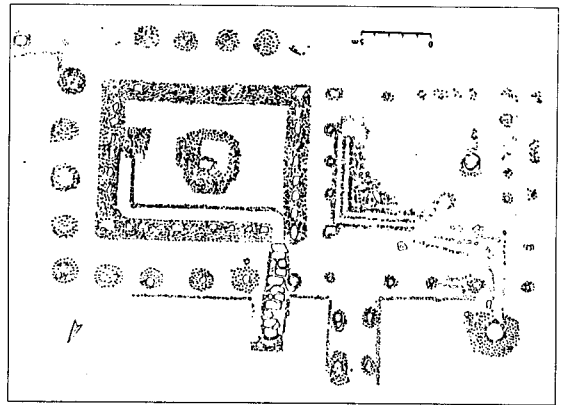


그림 11. 줍안 동대자 유적(자료:장경호, 73쪽)

거하던 곳으로 보였다고 한다. 黑龍江省 寧安縣에 있는 발해의 구들유적은 발해의 수도인 上京 龍泉府 궁전터에서 발견되었다. 본전에 3개의 방을 만들어 이들 각각에 쌍줄고래를 ㄱ자형평면으로 두어 북측의 굴뚝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궁궐의 本殿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북방지역에서는 온돌의 계층적 확산이 일찍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III. 결론

지금까지 한국 주거사 연구에 있어서 선사시대와 고대부분의 연구현황과 쟁점들을 살펴 보았다. 비록 주거사의 학문적 연혁이 불과 30여년에 지나지 않지만 가설적이거나 통사적 체계를 갖출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주거사 연구자들이 불모의 학문적 토양위에서도 한국주거사의 학문적 체계를 수립한 것은 높이 평가되지만 아직도 인접학문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사료의 부족, 기술사에 치중된 역사인식, 시대구분과 편년의 불명료성, 통시적, 공시적 해석의 부족 등은 주거사를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설정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인접학문분야의 최신 연구결과 및 자료들을 근거로 새로운 사료나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음은 주거사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이러한 인접학문의

39) 정찬영,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1966, 장경호, 앞책 72쪽에서 재인용

성과들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주거사의 편제안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이론으로 정립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주거사적 연구 중에서 선사시대 및 고대부분에 관한 시대구분과 시대적 성격을 비교검토했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구석기 시대 : 60만년전 ~ 1만년전

기존의 연구에서 구석기인들은 자연동굴이나 바위그늘 등 자연적인 은신처에 거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의해 옹기 굴포리, 공주 석장리, 제천 창내, 대전 화순 등 후기 구석기시대 인공건축의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이 인공적인 주거건축으로 추정되는 한 한반도에서 인공주거의 시작은 후기 구석기로 올려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평지 막집형 주거임을 감안 할 때 움집에 선행되는 시원적 주거유형이 건설되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신석기 시대 : B.C 6000년 ~ B.C1000년

기존연구에서 신석기 시대는 수렵, 채집 경제시대로서 이동을 전제로 한 임시적 거처로서 움집을 건설하였다고 단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어로 및 원시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정착성을 전제하고 있다. 평지 막집형 주거에 비교해 볼 때 움집은 기후대응력이 크고, 풍압에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움집은 오히려 정착성이 강한 주거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 움집은 이동형 주거에서 정착형 주거로 발전하는 과정적 단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3) 청동기 시대 : B.C 1000년 ~ B.C 300

기존의 연구에서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의 움집에서 평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설명되어 왔다. 즉, 움집이라는 주거유형은 지속되지만 장방형 평면, 저장공의 소실, 화덕의 편재나 화덕수의 증가 등 평면적 변화가 있다고 설명

되었다. 기존의 학자들은 대부분 청동기 시대 반움집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주거지 조사에서 수직 벽체나 초석, 지면과 분리된 지붕구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고고학적 해석에 의해 반움집으로 규정되고 있다. 반움집은 움집의 평면적 변화에 수반되는 형태적 변화일 뿐 만 아니라 지상주거로 이행하는 과정적 단계라는 점에서 이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한 성격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 4) 초기철기 시대 : B.C 300 - 기원후 300

종래의 연구에서 초기철기시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채 청동기 시대나 삼국시대에 편입되어 있었다. 원삼국시대로 규정한 학자도 결국 문헌적 근거에 의해 움집과 귀틀집, 고상주거 등 세가지 주거유형을 나열하고 있을 뿐 청동기 시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지상주거로 발전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며, 한편 온돌난방의 증거들도 발견되고 있어 시대를 구분할 만한 충분한 근거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또한 지상주거로의 발전과 온돌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쟁적 지평을 열어 주었다고 보여진다.

### 5) 삼국시대 : 기원후 300년 - 기원후 700년

삼국시대는 고대국가체제의 성립에 수반된 사유재산제의 확립, 사회계층의 분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근거를 두고 주거공간의 분화와 건축기술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는 분명 지배계층주거의 일면만을 설명한 것일뿐 주거계층의 분화라는 시대적 성격을 유도해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항목만을 설정하였을 뿐 가야를 포함한 지역적 성격의 차별성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의 연구에서 제시된 온돌의 지역적 전파와 계층적 확산, 마루의 발달과 전파 등은 공식적 해석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 시기의 지역적, 계층적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상), 오월, 1988  
 손보기,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사연구 9, 한국사연구회, 1973  
 이용조 외 4인, 우리의 선사문화(I), 지식산업사, 1994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I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김정기, 우리나라 주택의 역사, 한국주택의 어제와 오늘, 대한주택공사, 1977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3  
 홍형옥,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5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1991  
 임효재, 권학수, “오산리 유적 II”,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9책.제10책,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4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 일지사, 1991  
 김용남, 김용간, 황기덕,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5  
 임영진, 움집의 분류와 변천, 한국고고학보 17.18, 한국고고학연구회, 1985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3  
 유 엠 부젠, 고조선 역사.고고학적 개요, 소나무, 1990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 가야건축, 김해시건축사회, 1995

# A Study on the Periodiz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dwellings during the age of prehistory and the ancient Kingdomes

Kang, Young Hwan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ABSTRACT

Owing to the energetic studies of the leading scholars, some paradigmatic theories on the history of Korean dwellings have been suggested. They constructed periodization of their own and defined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with very limited historical materials. However the new historical materials have been discovered in the neighboring academic fields, which require to review the existing theories.

This study aims at restructuring periodiz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dwellings during the age of The prehistory and The ancient Kingdomes. Through the study, the existing theories on the same period are review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new materials. I suggest a new theory on the period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 a. the paleolithic period(6,000,000 B.P.-10,000 B.P.) : natural shelter,  
the emergence of man-made dwellings
- b. the neolithic period(10,000 B.P.-1,000 B.C.) : construction of pit house
- c. the bronze period(1,000 B.C.- 300 B.C.) : construction of semi-pit house
- d. the early metallic period(300 B.C. - 300 A.D.) : construction of house on the ground level  
development of the Ondol system
- e. the ancient kingdomes period(300 AD - 700 AD): classification of housing type